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부산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2일 서울 신길동 에서 열린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표라도 더" 후보들 자정까지 표심 공략

대세론-견제론 맞서며 부동층 표심잡기 나서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들은 밤 늦게까지 거점지역을 돌며 쉰 목소리로 마지막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후보들은 이날 열린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연계해 투표와 지지를 호소하는데 남은 힘을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대세론을 앞세워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일당독주 견제론으로 맞서며 막판 부동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후보들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찾아든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소외된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해남·진도·장흥·여수·목포 등을 도는 '마라톤 유세'를 통해 숨어있는 부동표 흡수에 혼신을 다했다.

'호남 1당' 민주평화당은 '40시간 뒤집기 한판 유세'와 게릴라식 유세, 맨투맨식 도보운동 등을 통해 '여당 심판'과 '견제세력 지지'를 호소했다.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 박매호 전남지사 후보 등 바른미래당은 "일당 독점 정산이 지역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지역 내 야권 지지율 1위를 강조하며 '역동적인 변화', '광주발 혁신'에 소중한 한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무박2일' 유세전을 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등 각급 선거에 56명이 등판한 민중당은 "진보정당은 민중당 뿐"이라며 진보에 뜻 깊은 한표를 호소했다.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름 알리기에 전력했다. 기호가 없고 선거구별 순번을 달리하는 탓에 오로지 이름만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정선 후보와 최영태 후보는 장휘국 후보의 3선 저지에 막바지 선거운동의 초점을 맞췄고, 장 후보는 현직의 안정감 있는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두 후보의 공격에 맞섰다.

절대 강자 없는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경력, 자녀교육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며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장석웅 후보의 교직경력 문제를 제기한 고석규 후보는 장 후보 이탈표 공략에 나섰다.

전남선관위는 장 후보의 교직 경력인 '37년 평교사'를 '32년 10개월 10일'로 정정했다. 반면 장석웅·오인성 후보는 공동전선을 형성해 고 후보 자녀의 수도권 외고 진학을 '특권교육'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야 지도부 서울서 마무리 유세 지지 호소

여야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2일 최대 전략지인 서울에서 마무리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명동을 찾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앞서 오전에는 부산 진구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전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다. 추 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오거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데 이어 또 다른 보수 텃밭인 울산과 대구, 대전을 차례로 방문해 송철호·임대윤·허태정 등 각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판세 점검과 막판 뒤집기 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경기 안산시와 서울 광화문을 찾아 총력유세를 펼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와 강남구, 중랑구, 광진구 등을 찾은 뒤 오후 9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거리 유세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선대위 회의를 가진 뒤 서울과 경기, 광주 등으로 흩어져 '각개격파'에 나섰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수원과 금천, 관악 등에서 유세 후 오후 5시부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명동과 종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과 전남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정미 대표는 창원에서 마지막 유세 지원을 했고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를 찾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현대차 19일 협약 체결할 듯

차종·규모 등 이견 좁혀

합작법인 형식의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의 협약 조인식이 오는 1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현대차와의 집중 협상을 통해 위탁생산 차종과 규모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이 현대자동차를 처음 방문한 데 이어 지난주에만 3차례 협상에 임했다. 시는 이 협상에서 위탁 생산하게 될 차량 품목과 규모, 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의향서 제출 전부터 합작법인 설립과 차량 생산 방식 등을 논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광주가 노사민정과 지역사회 대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 일자리로 현대차 투자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미래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제 광주시와 현대차가 함께 첫발을 내디딘 만큼 협상 등 투자방안 구체화에 지혜를 모아 주길 바라며, 다음주로 예정된 조인식도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는 오는 19일 투자협약 조인식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약을 맺으면 이후 합작법인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새 합작법인은 자산규모가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와 현대차가 각각 1,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생산 차종은 '현대차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경제성을 갖춘 신차'가 거론된다. 시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현대차 부품업체의 광주 진출, 다른 대기업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등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투자 규모와 방식, 투자자 모집 시기와 방법 등 쟁점이 많아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므로 조만간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심 노른자위' 광주 민간공원 6곳 2단계 특례사업 7개 지구 참여 의향서 183개 제출 '후끈'

지역 건설업체 관심 높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 6개에 대한 사업 참여 의향서가 183개가 제출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일 하룻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6개 공원 7개 지구에 단독 181개, 컨소시엄 2개 등의 의향서가 제출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 등 모두 6곳이며, 이 가운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나눠 시행한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중앙1 지구와 중앙 2지구에 각 27개와 29개가 접수됐으며 중외 25개, 일곡 27개, 송정 23개, 운암산 29개, 신용(운암) 23개 등이다. 공기업은 1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서 역시 17개가 접수됐다.

개발 규모와 면적 등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이처럼 의향서가 대거 몰린 것은 그만큼 공원 부지 개발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향서는 모든 공원에 중복 제출할 수 있지만, 제안서는 단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어 업체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9월 14일이며, 10월까지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향서 접수에는 중복 참여가 다수여서 참가 업체 수가 많지만, 제안서 접수는 1곳에만 하게 돼 있다"며 "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와 시민심사단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원룸 매매 [상가원룸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1층 ★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융3억)
▶매가 9억5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80만 ▶매가 8억2천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③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융3억5천만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5백 월 33만
▶시세 1억3천
매가 7천5백만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19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만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매가 9억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융1억2천)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 매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

상가 건물매매

북구 용봉동 우미A.P.T
상대 1분(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상가건물 안집 있음)

보 1억6천 만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① 평택 투자 하실분
② 부동산 공동투자하실분

※ 연 20% 수익보장
(설정가능)

010-6670-9800

법률 경매
㈜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상가빌딩(추천)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3)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정가 37억 → 최저가11억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토지 추천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 시세 18억 → 최저가9억5천
2) 북구 문흥동 토 378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7천9백
4) 나주시 송월동 17l평 상업지
▶ 감정가 8억4천5백 → 최저가 4억7천
5) 장성군 장성읍 90,910평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
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 1억2천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산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 매매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① 서구 금호동 7층 중 7층상가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만
② 남구 백운동 (빌라)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③ 북구 신안동 (6층 숙박시설)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4억8천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9백
⑤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A.P.T, 주택
① 남구 봉선동 삼익아파트 (34평)
감정가 2억4천3백 → 최저가 1억7천
② 남구 봉선동 더샬아파트 (54평)
시세 1억4백 → 최저가 6억6천
③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40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7백
④ 북구 신안동 삼익아파트 (34평)
감정가 1억3천2백 → 최저가 8천2백
⑤ 서구 치평동 대주아파트 (23평)
시세 1억8천 → 최저가 1억5천7백

공장/기타
①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19평)
시세 1억 → 최저가 7천2백
② 광산구 신창동 부영아파트(34평)
시세2억 1천→ 최저가 1억4천
③ 광산구 오선동 공장(토 560평 건 590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 9천
④ 광산구 월전동 공장(토 2000평 건 2600평)
감정가 68억 → 최저가 47억
⑤ 서구 양동 (숙박시설토 136평 건 427평
감정가 12억8천 →최저가 12억8천

010-7384-7800 010-6670-9800